ARCASIA(아시아건축사협의회)란 무엇인가

What is ARCASIA?

제10회 아카시아 토론회(Tenth ARCASIA Forum)가 본 협회(KIRA)주최로 오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인터컨티넨탈호텔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아시아에서의 기술, 전통 그리고 건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아시아지역 16개 회원국 대표단과 행사관계자, 그리고 일반참가자 등 약 1천여명이 참가해 아시아지역 건축사들간 유대를 강화하고 주제 토론을 통한 기술교류 및 건축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이번 행사는 토론회와 함께 공식행사로 아카시아 이사회와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리며 아시아건축상 시상식과 각종 전시회, 건축탐방, 한국건축 소개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특히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개최되는 이번 ARCASIA Forum 행사에는 지명도가 높은 외국 건축사들이 상당수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많은 건축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아울러 한국에서의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계기로 침체돼 있는 우리 건축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건축의 위상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88년 아카시아대회를 제외하고는 국제관련 행사가 주로 외국에서 열렸던 관계로 직접적으로 행사에 관계했던 인사나 일부 관심있는 국내 건축사 이외에는 아카시아의 성격과 역할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그만큼 관련행사에 대한 관심도가 적었던 것 같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축관련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외국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설계 또한 시장개방의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점차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건축계는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 건축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아카시아는 회원국의 현안에 대해 서로의 정보교환과 토론이 있었으며, 아시아 각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서방세계와 의견교환을 통해 지속적인 대화를 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본지에서는 ARCASIA Forum의 서울개최를 계기로 ARCASIA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아카시아의 연혁과 성격 그리고 관련행사 및 회의구성 등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또한 지난 85년이후 우리 협회가 한국대표로 참가해 활동한 내용 등을 정리해 이번호부터 게재코자 한다. (편집자주)

용어 및 학술행사와 주요회의들의 의미

□ 아카시아(ARCASIA)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는 아시아지역의 각국이 자국내 건축사들의 모임인 협회차원에서 회원이 되어 아시아국가간의 건축활동의 교류 및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비정치, 비종교, 비영리 모임으로 해마다 모이며 공식언어는 영어다. 동아시아 3개국과 타일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영연방국가(Commonwealth)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어는 모국어나 다름이 없다.

□ **주요학술행사** (해마다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아시아지역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며 각각 격년제로 열린다.)

아시아건축사대회(ACA,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짝수 년도에 열리는 학술대회로 회원국들간의 학술 및 작품 발표와 토론을 통한 교류의 장이다. 1998년 제8차 대회까지 여덟번 치루었다.

아카시아학술토론회(ARCASIA Forum): 홀수 년도에 열리는 학술대회로 회원국들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자 또는 유명건축가들의 학술 및 작품발표와 토론의 장이다. Forum은 1999년 올해 열번째를 맞으며 우리 협회가 주최국이다. 이번 제10차 학술토론회 주제는 Technology, Tradition and Architecture in ASIA(아시아의 기술과 전통 그리고 건축)이다.

□ 주요 회의

행사들을 원만히 치루어내게 할 뿐 아니라 회원국 상호간 공통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협의한다. 학술행사 시작 전에 회원국 협회의 공식대표들이 모여서 약 이틀에 걸쳐서 미리 각국에 보내진 전년도 회의록을 검토하고 새로운 사항들을 논의한다.

아카시아 이사회(ARCASIA Council Meeting): 이사회(ARCASIA)는 의결기구로 회원자격 및 차기대회 개최지 등을

결정하고 회장단(Office Bearers, ARCASIA Board)을 구성한다. 이사회는 격년제로 시상하는 아카시아상을 결정한다. 공식대표는 회원국 협회의 회장이나 대개는 국제위원장이 대행한다.

아카시아 교육위원회(ACAE, ARCASIA Committee for Architectural Education): 교육위원회(ACAE)는 회원국 위원회 대표들이 자국건축교육에 대한 년간 활동보고를 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협의, 회의 결과를 위원장이 이사회에 보고한다. 교육위원회는 격년제로 열리는 건축학도 잼버리 및 아시아 학생 건축상을 주관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여기서 건축교육이라 하면 학교에서의 교육, 졸업후 전문화된 훈련과 개발, 건축사로 등록한 후의 지속적인 전문화의 개발 등을 다루는데 특히 전문화 훈련과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토의를 한다. 그리고 학점상호 인증제도라든가 학생 및 교수들의 상호교환에 관한 항목들도 협의한다. 최근에 들어 아시아지역 건축대학 학장단 회의(CODHASIA)을 결성하여 교육위원회와 연계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다.

관련행사 및 회의

▫ 학생잼버리

건축학도 잼버리대회(ARCASIA Student Jamboree): 학생잼버리는 아시아건축사대회(ACA)가 열리는 짝수 해에 함께 열리며 회원국의 건축과 재학생들이 모여서 작품발표 등을 통한 교류다. 우리협회는 그동안 공모전 수상자를 두명씩 파견해왔다. 잼버리대회가 없는 홀수 해에 선발된 학생들은 대표단과 함께 가서 개최국에서 제공하는 관광 및 학술토론회에 참석한다. 우리협회는 1988년 제3차 아시아건축사대회와 함께 제2차 건축학도 잼버리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 건축상

아카시아 건축상(ARCASIA Award): 여러번에 걸친 이사회의 결의 끝에 회원국의 우수작품들을 분야별로 수상하기로 하여 아시아건축사대회(ACA)가 열리는 짝수 해에 시행해 왔다. 1992년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 건축사대회시 제1회 아카시아건축상을 시상했다. 지역성이 우수한 작품에 상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선정대상 작품은 크게 네 개의 분야로 주거시설(Residential), 공공시설(Public Amenity), 산업시설(Industrial Building) , 문화재보전 및 보수(Conservation)이다. 주거시설분야는 단독주거와 공동주거 부분으로 나뉜다.

아카시아 학생건축상(ARCASIA Student Award): 최근들어 어렵게 회원국이 된 신일본건축가협회(JIA)가 발의하여 1996년부터 내는 기금으로 아시아건축사대회(ACA)가 열리는 짝수 해에 건축과 학생들을 위한 작품상을 시상하고 있다. 미리 테마가 주어지며 행사시 전시회를 한다. 기금은 일본화 30만 엔씩이다.

▫ 관련 회의

아시아건축대학학장단협의회(CODHASIA, Council Of Deans and Heads ASIA): 건축학교(School of Architecture)체제를 갖춘 나라들끼리 발의한 모임으로 지난 1994년 제6차 아시아건축사대회시 필리핀이 주제하여 첫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명칭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Council일 수는 없고 아카시아의 하나의 기구(Arm)일 뿐이다' 라고 아사회에서 결론을 내렸다. 대부분의 교육위원회(ACAE) 대표자들이 교수이다 보니 이 모임도 참석자가 겹치게 되어 한정된 시간 내에 회의를 하다보니 서로 회의실을 나누어 쓰는 해프닝도 가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건축학교체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학점인증의 문제 등에 따라 차츰 변하고 있다.

교육인증제도에 관한 소위원회(Accredita-tion Committee): 설계학점 등의 인증제도에 관해 협의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대로라면 WTO에서 요구하는 최소의 설계학점과 너무도 차이가 나서 국제사회에서 인증하는 건축사로는 자격이 안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시장은 곧 개방이 될 예정이므로 우리협회의 회원들은 국제사회의 추이를 관심있게 보지 않으면 안된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카시아는 이를 대변하여 국제건축가연맹과 계속 협의중이다. 아시아건축사협의회가 영연방국가들에 의해서 발족이 되다 보니 국제적인 회의를 자주할 수 없으므로 한번 모였을 때 효율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대개는 다음의 모임을 가진다.

영연방 건축사협회이사회(CAA Council Meeting): CAA(Common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란 아시아의 많은 나라와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과거 영연방국가들의 건축사협회를 말하며 우리 협회는 회원이 아니므로 대개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어떤 내용을 논의하는가를 협회에 보고할 뿐 공식적인 기록은 남기지 않는다.

국제건축가연맹 제4지역회의(UIA Region Ⅳ): 이들은 또한 국제건축가연맹 제4지역에 모두 속하므로 대개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시 제4지역회의를 한다. 제4지역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지역의 대부분이 속하며 북한도 속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UIA는 건축가협회(KIA)가 회원 협회다. 건축가협회가 이 회의만을 위해 참여할 수 없으므로 우리 협회가 참관인으로 참석해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준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오래

전부터 양쪽 협회의 국제위원은 통일하자는 논의가 있어 왔고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실현되어 대부분은 통일되어 있는 형편이다. 일본의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자국내에서는 어찌되었건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협회인 신일본건축가협회(JIA)를 약 10여년 전에 만들었다.

친교행사와 관광

□ 친교행사

개막식(Opening Ceremony): 건축사대회나 토론회의 전야제이다. 개막식에서는 대체로 주최국의 전통적인 것이나 내놓을 만한 공연들을 제공해 멀리에서 온 손님들을 환대한다.

우정의 밤(Frendship Night): 각국의 우의를 다지는 친교의 밤은 각국이 장기자랑을 하며 서로 교류한다.

폐회만찬(Closing Dinner): 폐회를 알리는 저녁식사로 이듬해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비교적 조용한 공연 속에서 만찬을 한다.

□ 관광행사

일일관광(Day Tour): 주최국의 전통건축이나 현대건축들을 중심으로 건축적으로 가치있다고 판단되는 곳들을 탐방하는 행사로 네다섯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참가자전원이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무료이다.

배우자관광(Spouse Tour): 부부동반 방문회원이나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참관인 자격으로 방문하는 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회의참석중의 공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볼거리나 쇼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행사전관광(Pre Congress/Forum Tour) 및 행사후 관광(Post Congress/Forum Tour): 행사전이나 후에 시간이 있는 참가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약 일주일이내의 시간을 가지고 건축적으로 우수한 곳 및 마을들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박 3일~5박 6일에 걸쳐 주제별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대개는 모든 회의가 끝나고 가벼운 기분으로 주최국의 풍광을 둘러보며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아카시아의 설립목적과 의의

1984년 제1차 아시아 건축사대회에 우리 협회가 참관단체자격으로 다녀온 후 국제위원회의 김지덕회원이 쓴 보고서(건축사 1984. 11.)를 참조하여 중요한 항목만를 소개한다.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아시아지역의 건축사들은 자국의 지역적 특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식민지 영향의 껍질을 벗고자하는 와중에서 심각한 고민거리들로 궁지에 직면하여 있었다. 대다수 아시아지역들은 후진국이거나 개발도상국으로 그들은 세계적인 차관단체나 공업선진국이 자기들 나라 취향에 맞추는 초점과 규정을 감수해야 했다.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요구항목이나 개발국면을 고려하기보다는 우선 선진산업국의 경제정책전략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일방적 경제원조나 차관조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아시아는 각양각색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와 사회조직으로 이루어져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아시아 국가간의 문화와 유산을 연결시키려는 공동 열망의 이해를 통한 어떤 필연의 요구사항이 생기게 되어 아시아지역의 건축사들이 지역의 공동문제와 요구사항들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만들어나간 것이다. 연혁에 대해서는 다시 소개를 하겠지만 1967년 최초의 6개국이 모여 창설위원회를 열고 1970년 명칭을 정하고 그후 몇 번의 회의를 거쳐 1984년 제1차 아시아건축사대회를 열게 된 것이다. 현재 회원국은 16개국이며 1개국이 입회승인을 대기하고 있다. 과거의 일본은 이러한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는 국가라고 거절되었으나 지금은 회원국이 되었고 대만은 처음에는 참여했었으나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로 회원국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Architect(건축가/건축사)를 지칭할 때에는 당연히 실무건축가 즉 건축사를 말한다. 법률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실무건축가가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교수가 실무를 하기도 한다. 명예를 떠나서 실질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무건축가들이 학생교육에 대해서 논의하고 학점인증제도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건축가가 참석하는데 우리나라는 건축사가 참석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어찌되었거나 아시아건축사협의회에는 우리 협회가 공식회원협회이므로 회장을 비롯하여 국제위원회는 8천여 건축사를 대신하여 최선을 다해서 한국을 대표할 뿐이다.

국제사회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 그동안 아시아건축사협의회는 아시아건축사대회(ACA)나 아카시아학술토론회(Forum)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이 안고 있는 당면한 여러 주제들을 다루어왔다. 개발로 인하여 사라져가는 아시아의 도시들을 안타까워 하며, 영혼을 간직한 도시라든가 아시아건축사들의 주체성에 대하여 다각적인 토의를 해왔다. 금번 우리 협회가 주최하는 제10차 토론회에서 아시아의 기술과 전통에 관하여 아시아국가들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회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아카시아를 소개한다. 우리협회의 회원들을 위해 특별히 동시통역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한다.〈글/조인숙, 본협회 국제위원 · 다리건축대표〉